

# 언론학자 10명이 추천한 텔레비전 이론서 및 비평서 10권

거시적 · 미시적 관점에서 텔레비전 분석한 책들

텔레비전의 막대한 권력은 학문적 비평이나 분석의 대상이 돼왔다. 텔레비전 연구는 바로 현대사회의 신경망을 검진하는 일과 같다. 텔레비전 문화 연구 현장에서 다양한 담론을 생산해온 언론학자들이 텔레비전을 올바르게 바라보기 위한 책들을 추천했다. 그 가운데 복수추천된 책 10권을 소개한다.

## 추천인 명단(가나다순)

김기태: 호남대 신방과 교수	김동민: 한일장신대 신방과 교수
김승현: 고려대 신방과 교수	김우룡: 한국외대 신방과 교수
마동훈: 전북대 신방과 교수	송해룡: 성균관대 신방과 교수
안동근: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양은경: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전규찬: 강원대 신방과 교수	최창섭: 서강대 신방과 교수

## 《텔레비전에 대하여》

피에르 부르디외의 지음 | 현택수 옮김  
동문선/A5변형/158면/7000원

이 책은 텔레비전이 정치적 삶과 민주주의는 물론,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문화를 생산하는 여러 분야에 위협적이라고 주장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화면 속에 등장하기까지 가해지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검열과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보여주면서 감추는' 텔레비전의 속성을 '진짜 같은 가짜 토론, 혹은 진짜로 가짜인 토론' 등을 예로 들어 짚어본다. 또, 텔레비전 영상과 담론의 인위적인 구조를 만드는 비밀, 영상과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텔레비전이 문화생산의 다른 영역인 예술, 문학, 철학, 정치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과정 등도 소개한다.

## 《방송비평의 실제》

한국방송비평회 지음  
한울/A5신/362면/15,000원

TV 드라마를 비롯해 정치 · 경제 · 오락 · 다큐멘터리 · 소외계층 · 음악 분야의 방송 프로그램 비평을 엮었다. 방송 · 커뮤니케이션 전문 학자, 방송전문가, 신문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필자로 참여해 개별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꼼꼼히 분석했다. <허준> <용의 눈물> <목욕탕집 남자들> 등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드라마 형식을 주요한 비평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방송 연구자뿐 아니라 일

반독자에게도 흥미롭게 읽힐 만하다.

또한 방송이 경제 · 사회 · 문화 등과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방송의 현주소와 나갈 길을 밝히고 방송의 사회적 역할도 살폈다.

## 《텔레비전 문화연구》

황인성 편저  
한나래/A5신/446면/16,000원

방송문화비평 연구모임인 한국방송학회 문화연구분과의 연구 성과를 묶었다. 모두 3부로 나뉘는데, 1부 '미디어와 문화연구'에서는 텔레비전을 둘러싼 국내외적인 상황과 텔레비전의 매체적 특성을 다루고, 2부 '텔레비전 프로그램 비평'에서는 보도 · 다큐멘터리 · 드라마 등과 그 수용자를 분석한다. 3부 '텔레비전 스타 및 작가연구'에서는 스타시스템과 드라마 여성작가를 비평하고 있다.

<흩어진 이미지의 파편들>은 텔레비전이 시각 중심의 전(前)방향적 감각 · 경험을 해체하는 일상의 공간이라고 규정한다. 텔레비전의 관습적인 서술방식과 이데올로기적 의미 구축과의 관계를 살핀 <텔레비전 담론의 이해: 담론성, 주체성, 희극성>은 텔레비전 서술방식이 그 행위를 숨김으로써 시청자에게 텔레비전의 권위를 받아들이도록 조장한다고 강조한다.

## 《텔레비전 비평론》

원용진 지음  
한울/A5신/324면/12,000원

텔레비전 비평의 정의, 유형, 방송광고와 시민운동과의 관계 등을 살폈다. 지은이는 기존의 방송비평가들이 방송프로그램을 제대로 보지 않고 서구의 어려운 이론을 인용해 비난하는 데만 급급했다고 지적하고 텔레비전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데 필요한 화법을 제시했다.

지은이는 텔레비전을 비평대상으로 삼을 때 그 물질 기반, 내용, 수용환경 등의 세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1부에서는 텔레비전 비평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2부에서는 역사비평, 신화 · 이데올로기비평, 페미니즘비평 등 다양한 이론을 서술했다. 마지막 장에서는 1990년대 들어 시작된 시민언론운동을 평가하면서 대안매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텔레비전과 현대비평》

R. 알렌 위음 | 김훈순 옮김  
나남/A5신/384면/9000원

1987년 영국에서 출판된 책을 번역했다. 텔레비전 방송국의 증가, 케이블 텔레비전의 신설 등으로 생겨난 기존의 저널리즘 중심의 인상비평과 전통적 메시지 연구의 한계를 넘어 영상매체의 메시지 시스템을 분석, 해석, 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모색했다.

이 책은 기호학, 서사이론, 독자지향 비평, 장르연구, 이데올로기 비평, 정신분석학 등의 입장을 소개하고, 그 이론의 틀 안에서 연구대상으로서 텔레비전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를 탐색한다. 또한 텔레비전을 분석하는 구체적인 실례도 제공한다. 개관적인 범주화와 수량적 처리를 주로 취급하는 전통적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과는 다른 시각에서 텔레비전을 분석,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 《TV읽기》

존 피스크 · 존 하트리 지음 | 이익성 · 이은호 옮김  
현대미술사/A5신/240면/6500원

사회학과 기호학, 심리학, 언어학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텔레비전을 문화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지은이들은 텔레비전의 담론과 음성언어가 서로 유사하며 언어와 텔레비전은 둘 다 실재를 중재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텔레비전 매체가 실재를 '보는 방식'이 그 특성상 문자적이기보다는 '구비적'이라고 정의한다.

이 책은 텔레비전이 수행하는 역할을 '음유시인'의 기능과 대비해 정리한다. 즉 텔레비전은 문화적 합의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것, 문화의 구성원 개인을 그 문화의 지배적 가치체계에 포함시키는 것, 외부세계에서 그 문화를 대표하는 개인의 행위를 널리 알리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옹호하는 것, 이데올로기와 신화를 강화하는 것, 문화적 일체감을 전달하는 것 등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 《텔레비전 화면개기》

주창윤 · 최영목 지음  
한울/A5신/282면/12,000원

텔레비전 비평의 방법과 실재를 우리나라 방송현실에 맞춰 체계적으로 서술한 이론서. 지은이들은 '텔레비전 비평'의 이해를 시작으로 보도와 시사, 다큐멘터리, 드라마, 연예 오락, 시트콤 등 장르별 방송비평을 담고, 각 장르를 중심으로 비평의 핵심요소들을 논의한다. 1999년부터 2001년 초반까지 방영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실제비평도 실었다.

지은이들은 이 책이 "텔레비전의 화면을 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지키고 그 나름의 좌표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론서의 품위는 지키되 대중에게 친숙한 서술형식을 택한 것은 이 책의 미덕이며, 텔레비전 비평의 윤곽을 그리는 데 도움을 준다.

## 《방송의 세계화와 문화정체성》

데이비드 몰리 외 지음 | 마동훈 외 옮김  
한울/A5신/384면/18,000원

탈현대의 지형조건 아래 부각된 지식인들의 정체성과 권력관계 등을 미디어 테크놀러지와 관련지어 설명하며 '유럽인의 정체성 이슈' 세가지를 제시한다. 기존의 통치 단위로서 기능한 국가정체성 개념이 민족 단위의 정체성 개념으로 전화하고 있고, 유럽자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유럽인 대 비유럽인의 구도 하에서 유럽인의 정체성을 인지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글로벌 미디어의 지평〉 등에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문화와 정치의 의미와 공동체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고찰한 후 〈과연 무엇이 종말인가〉에서는 유럽중심주의의 소멸과 함께 미디어제국주의를 위시한 문화제국주의의 부활을 선포한다.

## 《텔레비전론》

레이먼드 윌리엄스 지음 | 박효숙 옮김  
현대미술사/A5신/242면/7500원

텔레비전에 대한 가장 유용하고 사려 깊은 고전으로 평가받는 이 책은 영국의 문화유물론자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1968년부터 4년간 미국의 방송체제를 경험하고 분석한 토대 위에서 씌어졌다. 텔레비전 문화의 여러 대안적 가능성들을 요약·예견해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지 일깨우는 데 주력한다.

지은이는 기술로서의 텔레비전과 문화형식으로서의 텔레비전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요소임을 힘주어 밝히고 있다. 또한 텔레비전의 기술사 및 문화사를 사회 전반의 흐름과 함께 조명하면서, 개괄적 사실을 면밀히 분석할 뿐 아니라 그 이면에 도사린 이데올로기나 상업주의, 문화적 침투 등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의미를 밝히고 있다.

## 《글로벌 텔레비전》

크리스 바커 지음 | 하중은 외 옮김  
민음사/A5신/404면/13,000원

텔레비전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실시간에 동시에 발적으로 전 세계로 중계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 미디어 그룹의 텔레비전 지배가 가속화하면서, 정보에 대한 독점 등으로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 파괴라는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책은 전세계적 문화현상이며 공통환경이 돼버린 '글로벌 텔레비전'의 문화·사회·정치적 영향력을 분석한다. 특히 세계인이 함께 보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뉴스와 드라마를 실례로 들어 수용자의 태도, 이데올로기, 자주성의 측면에서 글로벌 텔레비전의 영향력을 살폈다. 또한 자본을 앞세워 거대 기업화돼가는 초국적 미디어 그룹과, 텔레비전을 매개로 전달되는 광고의 힘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세계인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생각하게 한다.